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적극 협력

전주시, 건축공무원 역량 강화 나서

전주시-한국관광공사 LA지사, 관광마케팅 활성화 위한 양해각서 체결... 특별한 동반자 관계 구상

미국을 방문 중인 우범기 전주시장이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미주 시장 공략에 나섰다.

전주시와 한국관광공사 LA지사(지사장 장유현, 이하 KTO LA지사)는 지난 12일(현지시간) '관광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시와 KTO LA지사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하여 △상품개발 △관광객 유치 해외 마케팅 협력 △전주시 주요 행사 안내 및 홍보 등에 협력하고, 향후 특별한 동반자 관계를 다지기로 했다.



전주시와 한국관광공사 LA지사는 지난 12일(현지시간) '관광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와 함께 시는 KTO LA한국지사와 현지여행사 대표이사들을 초청해 전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인 전주시는 그동안 다양한 국제교류와 국제행사, 해외 마케팅 등을 통해 글로벌네트워크를 지속 확장해왔으며, 올해를 '글로벌마케팅 원년의 해'로 삼아 세계적인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장유현 KTO LA지사장은 "미국 및 중남미에서 보다 한국적인 여행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도 다양한 한문화 콘텐츠를 보유

한 만큼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보다 능동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시기에 생각한다. 이번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전주에 더 많은 미주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대한민국 관광 거점도시 전주를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한복, 한식, 한지 등 다양한 한문화 콘텐츠부터 왕의공원 프로젝트까지

전주 관광의 부흥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북미뿐만 아니라 중남미 관광객들도 전주를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욱기 기자

건축 분야 전문성 확보·기초 직무 능력 향상 위한 직무교육 실시

전주시는 지난 12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건축직 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건축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건축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초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업무 경험이 풍부한 선배 공무원이 강사로 나서 △건축법 및 인·허가 의제 처리 △지구단위계획 규정 △감사 지적 사례 공유 등을 교육했다.

시는 더욱 복잡하고 세분화되는 건축 인·허가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횟수를 점차 늘려 건축 공무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건축물 안전관리 등 품질 높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승철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의 재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축행정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만족도 높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는 15일 국회를 찾아 '전주 대변혁 10대 프로젝트'와 '전주의 찬란한 도약을 위한 10대 역점전략' 등 2024년 시정 주요업무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전주시,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신규 채용 기업 월 70만원 지원

전주시는 오는 19일까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신중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중년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해야 하며, 시는 참여기업에 최대 1년간 월 70만원씩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시는 올해 신중년 18명을 신규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시는 사업에 참여하는 취업자가 장기근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년간에 걸쳐 최대 200만 원의 취업장

려금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전주지역의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으로, 현재 상시 고용인원 외 정규직 추가채용 계획이 있고 최저시급 이상의 월 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 새소식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전주시청 일자리정책과(완산구 노송광장로 29, 현대해상 6층)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전화(063-281-2555)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미취업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돕고, 중소기업은 우수 인력을 채용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인·구직의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 대변혁 위한 국회 공략

시 주요 간부공무원들, 지역 정치권 협조 요청

전주시가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시정 핵심과제 추진과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국회 공략에 나섰다.

시는 15일 국회를 찾아 거점별 도시 성장 핵심공간 조성을 위한 '전주 대변혁 10대 프로젝트'와 '전주의 찬란한 도약을 위한 10대 역점전략' 등 2024년 시정 주요업무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구했다.

트 주요 사업은 △아시아 최고의 역사 관광도시를 만드는 '왕의공원 프로젝트' △전라도 최대 MICE 산업중심지 도약을 위한 'MICE 복합단지 조성' △체육시설 집적화 및 스포츠 연계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호남제일문 대표 관광지 조성' 등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1일에도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정당별 전북도당 사무실과 지역구 의원 사무실을 찾아 2024년 국가예산 확보에 따른 감사 인사와 더불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한민희 정무부좌관을 비롯해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신임 발령 받은 김종택 기획조정국장,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시 주요 간부들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기획재정위, 익산) 등 전북지역 11명의 의원실을 찾아 전주 현안·역점사업의 추진 방향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종택 기획조정국장은 "지난해 우리는 굵고 강간도시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데 주력했으며 올해는 구체적으로 실행하여 전라도의 수도로 다시 도약하기 위해 거침없이 나아가겠다.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 정치권, 전북도 등과 협조해 시민들의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이웃사랑의사회, 덕진동에 설명절 후원 물품 전달

(사)이웃사랑의사회(이사장 최영태),는 15일 덕진구 덕진동(동장 한의중)을 찾아 130여만원 상당의 명절 상차림 물품을 전달했다.

이웃사랑의사회는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한 봉사단체이며 덕진동을 비롯한 전주시 각 동에 2002년부터 22년째 소외계층에게 이웃사랑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최영태 이웃사랑의사회 이사장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기쁘고 이분들이 풍요로운 설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의중 덕진동장은 "매년 잊지 않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후원해주는 의사회에 감사하며,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어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욱기 기자



이웃사랑의사회는 15일 덕진동을 찾아 130여만원 상당의 명절 상차림 물품을 전달했다.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제10회 무주 반디불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1월 17일(수)~1월 18일(목)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주최 및 주관: 전주매일신문사 전라북도스키협회

후원: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 덕유산리조트

****참가 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신문사)**